

銀行合併의 經濟的 效果： 國民銀行과 住宅銀行의 合併

趙 馥 顯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한 은행대형화가 해당은행의 비용효율성과 이윤효율성을 개선시켜 이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금융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논문은 외국은행합병들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연구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업무특성을 기초로 이에 대한 분석을 전개한다. 분석의 결과는 두 은행의 합병이 규모의 측면에서나 업무특성면에서 비용효율성과 이윤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도 오히려 악화되며, 금융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더 크며,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기존의 소비자는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한다.

1. 머리 말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선진각국은 은행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해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더 우수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우량은행들 사이에서는 물론,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사이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많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은행합병의 효율성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또는 이윤면에서의 효율성 개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규모의 증대는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否定的 效果만을 낳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金融시스템의 危險을 증대시킨다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은행합병이 개별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肯定的 效果를 가져다 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합병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조건이 전제될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수조건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개별은행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합병의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은 이에 대해서 은행의 효율성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 즉, 株主나 經營者의 利益을 위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대형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은행합병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5개의 은행(동남, 동화, 대동, 충청, 경기)이 契約移轉(P&A) 방식으로 타은행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충북, 강원, 장기신용, 보람은행이 타은행에 합병되었으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는 1차 금융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최근에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또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추진에 들어갔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당국이나 해당은행 경영진은 금융지주회사나 합병을 통한 大型金融機關의 탄생이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收益上의 效率性을 크게 改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은행의 대형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어려우며,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도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 장들에서 논의될 선진각국의 경험과 합병당사자인 두 은행의 업무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2. 銀行合併과 經濟的 效率性

은행합병의 경제적 효율성은 비용효율성과 수입 또는 이윤효율성으로 나누어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費用效率性은 동일한 생산량과 투입요소 가격하에서 산출량 단위당 비용의 개선으로 측정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은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된다. 그리고 收入效率性은 투입요소의 양과 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할 때, 수입의 개선으로 측정되며, 利潤效率性은 비용효율성과 수입효율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입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최고 효율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기도 한다.⁽¹⁾ 아래에서는 이들 비용효율성과 수입 또는 이윤효율성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 볼 것이다.⁽²⁾

2.1. 費用效率性

많은 은행경영자나 컨설턴트, 그리고 언론들은 은행의 합병을 통한 規模의 大型化나 業務領域의 擴大가 은행의 비용을 크게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모의 대형화는 생산물 단위당 고정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산투자비용을 절약하고 복잡한 금융수단의 취급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비용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이러한 비용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는 小型銀行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산규모가 1억\$에서 100억\$ 사이의 규모에서만 이러한 규모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산규모는 1,300억원에서 13조원 규모임).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형은행을 포함하는 합병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규모효율성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을 겪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Berger, Demsetz, and Strahan(1999)).

1986년의 미국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연구에서는 10억\$에서 30억\$ 사이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30억\$ 내지 60억\$ 또는 그 이상의 자산을 갖는 은행에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oulas, Ray, and Miller(1990)), 또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자산규모 50억\$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갖지만, 50억\$에서 100억\$ 사이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였고, 100억\$ 이상에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기 시작해, 250억\$ 이상에서는 현저한 규모의 불경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Timme, and Yang(1990)). 또한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는 총자산 20억\$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확인했으나, 20억\$에서 250억\$까지의 규모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250억\$ 이상의 자산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했다(Hunter and Timme(1995)).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규모와 비용효율성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

-
- (1) 이러한 효율성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Berger and Mester(1997), Akhavein, Berger, and Humphrey(1997), Berger(2000)을 참조하라.
 - (2) 일반적으로 비용효율성과 이윤효율성은 단순한 規模의 增大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다양화와 같은 範圍의 經濟를 통해서도 달성된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출업무, 투자업무, 보험업무 등과 같은 생산물 다양화를 가져와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모와 관련된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했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더 큰 자산규모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Berger and Mester(1997)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의 미국 상업은행 합병의 효율성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총자산 규모가 100억\$ 이하일 때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산 규모가 250억\$에 도달할 때까지도 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1990년대에도 250\$ 이상의 자산규모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 규모 증대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자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이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利率의 저하로 인해 큰 은행일수록 이자경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미채무성 이자율은 평균 9.74%였지만,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이것이 5.39%로 저하하였다. 둘째, 1990년대 들어와 은행지점의 지역제한 철폐 등과 같은 規制緩和과 지역간 합병의 규모의 이익을 더 크게 했기 때문이다. 셋째, 技術의 發展과 金融技術의 發展이 소형은행보다는 대형은행에 보다 더 큰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에 대한 한 연구는 합병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크게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은행합병의 경우만을 선정해, 비용과 이윤의 효율성 개선 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사 분석했다(Rhoades(1998)). 자산규모가 100억\$ 이상인 대형은행이면서, 상당한 정도로의 지점 중복을 갖는 은행들 사이의 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에 대한 總經費가 다른 비합병은행에 비해 개선된 사례는 9개 중 5개에 불과했으며, 총자산 중 非利子經費가 개선된 곳은 9개 중 6개였다. 비용은 주로 幹部職(staff)의 減縮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運賃費用節約을 통해 감소되었다. 특히 간부직의 감축은 총비용 감소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주요한 비용절약의 요소였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은행규모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익을 보기가 더욱 어렵다. 유럽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얻은 경우는 소형 또는 중간규모 은행들 사이의 합병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연구는 유럽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 적절한 은행자산 규모는 30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보고하고 있다(Vander Venet(1996)). 1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의 가상적 은행합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합병은행 중 28.3%만이 비용의 감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체의 71.7%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중 44%는 10% 이상의 비용증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가상적 합병은행이 비합병은행에 비해 7.1%의 비용증가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Altunbas,

Molyneux, and Thornton(1997)).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1988년에서 1992년 간의 유럽연합 은행부문의 합병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국내은행간에 합병은행이 피합병은행을 완전히 인수하는 경우에는 비용효율성을 전혀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ander Vennet(1996)). 이처럼 유럽에서 특히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비용절약의 주요 원천인 노동력의 감축이 유럽의 노동시장 특성이나 관행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10(2001)).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에 합병한 세개의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합병 후의 비용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인식(2000)).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용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합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신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Berger and Humphrey는 '정부의 합병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합병으로부터의 비용효율성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Berger and Humphrey(1997, p. 196))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합병이 소규모 은행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용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대형은행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효율성을 얻고자 한다면, 합병시 두 은행의 支店 重複이 많아야 하고, 또 합병은행이 피합병은행에 비해 越等한 費用上의 效率性을 얻고 있어야 하며, 합병시 두 은행이 강력한 비용절약 약정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도 지적하고 있다(Berger and Humphrey(1997), Rhoades(1998)). 그러나 다른 연구는 지점 중복이 비용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Rhoades(1998)).

2.2. 利潤效率性

은행합병의 수입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비용효율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훨씬 덜 이루어졌다. 그리고 銀行規模와 收入 또는 利潤效率性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이윤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은행에서보다는 중소규모 은행에서 더 잘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이에 대한 문헌연구로는 Berger(2000)). 유럽의 은행합병에 대한 연구는 規模보다는 合併의 形態에 따라 이윤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은행에 의한 흡수합병과 두 은행의 완전한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이윤효율성의 개선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동등한 파트너끼리의 합병의 경우에만 이윤의 개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Vander Vennet(1996)). 그러나 또 다른 영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합병에 대한 연구는 합병 후 상당한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Haynes and Thompson

(1999)). 일본의 경우는 합병 후에 수익성이 개선된 경우보다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이인식(2000)].

미국의 경우, 소형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더 큰 수입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연구는 자산규모 1억 \$에서 5억 \$ 수준의 소형은행과 5억 \$ 이상의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1978년, 1984년, 1990년의 수입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규모은행에서는 규모의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형은행에서는 규모의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rger, Humphrey, and Pulley(1996)]. 1990년에서 1995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또 다른 한 연구도 이윤의 규모의 경제가 대형 은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용과 이윤효율성 결과는 은행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들이 비용을 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Berger and Mester(1997, p. 936)).

또 다른 한 연구는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기대이윤은 커지지만, 資產規模 增大에 比例以下로 커지는 대신, 危險의 增加에는 比例以上으로 커져서 결국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른 이윤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Hughes, Lang, Mester, and Moon(1999)]. 다른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이윤의 효율성이 50억 \$에서 100억 \$ 사이에서는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은행의 장부의 거래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규모와 이윤효율성 사이의 어떤 일관된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다만 작은 규모나 대규모의 자산을 갖는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효율성을 찾고 있다[Clark and Siems(1997)].

그러나 어떤 연구들에서는 대형은행에서도 이윤의 효율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1년에서 1989년간의 10억 \$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들 사이의 합병에서 나타나는 이윤효율성을 조사한 한 연구는 합병하지 않은 다른 은행에 비해 합병한 은행의 합병 후 이윤효율성 개선이 더 큰 것으로 보고했다. 이윤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합병은행은 비합병은행에 비해 17포인트 더 큰 이윤효율성 개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Akhavain, Berger, and Humphrey(1997)]. 그러나 다른 한 연구는 은행의 규모와 이윤효율성과는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형은행들끼리의 합병이 수익성을 개선시킨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킨 경우도 있다[Rhoades(1998)].

은행합병의 미국 사례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윤효율성의 개선은 주로 중소기업의 은행에서 나타났다. 대형은행에서의 개선도 일부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합병이거나, 합병은행이 합병 이전에 이미 다른 은행들에 비해 이윤효율성이 높았거나, 또는 합병도 효율성이 높은 은행에 의해 효율성이 낮은 은행이 합병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유럽의 경우는 規模보다 合併形態에 따라 이윤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유럽연합 10개국의 1988년에서 1992년간의 합병은행 수익성 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한 은행이 완전히 인수되거나, 두 은행이 완전하게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法人體를 獨立의으로 유지하는 경우의 합병은 수익성 개선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은행이 독립법인체로 유지되면서 합병한 경우 합병은행이나 피합병은행 모두 합병 전 3년 평균에 비해 합병 후 3년 평균의 총자산이익율(ROA)과 자기자본이익율(ROE)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합병은행은 약간 악화되었으며, 피합병은행은 상당한 정도의 악화가 나타났다. 더욱이 우량은행에 의한 부실은행의 인수에도 불구하고 부실은행의 우량화는 달성되지 못했다.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완전히 인수한 경우는 ROA와 ROE 모두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은 각각 +0.01, +0.02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한편 규모가 비슷한 두 은행의 대등 합병의 경우에는 ROA와 ROE가 각각 +0.06, +1.9로 어느 정도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났다(Vander Venet (1996)). 또 다른 연구는 영국의 경우, 은행의 자산이 보다 생산성이 큰 은행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했다(Haynes and Thompson (1999)).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 합병한 第一勸業銀行과 太陽神戶銀行,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합병한 사쿠라은행과 아사히은행, 그리고 1996년에 합병한 東京三菱銀行의 합병후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第一勸業銀行만 수익성이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4개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식(2000)).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銀行合併이 利潤效率性 改善에 미친 效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은행합병이 어느 정도의 이윤효율성을 개선시키기는 하였지만,⁽³⁾ 이것이 은행합병의 이윤효율성 개선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Rhoades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9개의 합병을 이룬 은행들이 모두 효율성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基本的 特性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합병주체 은행이 費用減縮行動을 취했으며, 또 피합병은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이 합병을 달성한 은행 모두가 유리한 조건과 비이자비용의 상당한

(3) 이러한 이윤효율성의 개선이 앞에서 본 비용효율성의 불변 또는 악화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념이 서로 다르고, 측정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용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합병 후의 생산물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윤효율성은 모든 비용효율성 변화와 합병 후에 발생하는 산출물 변화의 비용 및 수입효과를 계산하고 있다((Akhavain, Berger, and Humphrey(1997)).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분명하게 효율성을 얻은 것은 아니며, 이윤의 개선을 이룬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리한 특성을 갖는 은행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은행들의 합병을 조사한 연구가 은행합병으로부터의 효율성 이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Rhoades(1998)]. G-10의 보고서도 최근 이윤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은행합병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조심스러운 경계를 하고 있다. “引受合併이 은행의 성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량한 은행이 열세한 은행을 합병한다. 그럴 경우 지난 10년 동안의 합병은 어떤 개선, 특히 收入側面에서 改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이익은 아마도 실무자들에게 의해서 선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대형기관의 합병을 포함하는 보다 최근에 전개된 합병의 효과를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G-10(2001)].

은행의 합병이 언제나 이윤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이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여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은행합병 후 生産物의 多樣化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Akhavein, Berger, and Humphrey(1997)는 이윤효율성의 증대가 합병 후에 안전한 채권위주의 자산운용에서 위험성이 더 큰 대출을 자산운용의 대상으로 삼아 生産物을 다양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경영자는 더 큰 위험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합병이 市場支配力을 增大시켜 대출이자율은 높게, 예금이자율은 낮게하여 이윤마진을 높이거나, 아니면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합병은 市場集中을 가져오고 이러한 시장집중은 가격책정에 있어서 獨占의 行態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은 합병 이후 貸出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이자율을 預金에 대해서는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銀行合併의 國民經濟的 效果

은행합병은 은행 그 자신의 비용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銀行利用可能性에 대한 영향, 그리고 金融시스템 全體의 安全性에 대한 영향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에도 일정한 효과를 미친다. 이 장에서는 은행합병이 중소기업 및 서민의 은행이용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3.1. 中小企業의 銀行利用可能性 效果

중소기업은 그들의 資金調達을 주로 銀行借入에 依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여러 은행보다는 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주로 의존한다. 중소기업은 공개된 기업정보나 신용상의 공신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정보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은 한 은행과의 長期 顧客關係를 통해서만 그들의 재무상태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조달할 수 있다.⁽⁴⁾

이러한 장기 고객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법은 다른 대출기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표준화된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信賴關係와 밀접한 統制와 監視를 기초로 이루어진다(Berger and Udell(1996)). 따라서 대형은행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대출이 비경제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형은행보다는 소형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은행의 규모와 그들 자산운용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을 보면 銀行規模가 클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이 작다. 미국의 경우 1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은 3-5%대인데 비해, 10억\$ 이하의 자산규모를 갖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은 8-9%대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1억\$ 이하 은행은 9.2%, 1억\$에서 3억\$ 사이의 은행은 9.3%, 3억\$에서 10억\$ 사이의 은행은 8.3%, 10억\$에서 50억\$ 사이의 은행은 5.9%, 50억\$ 이상의 은행에서는 3.4%의 중소기업 대출 몫을 보이고 있다(Strahan and Weston(1998)).

이러한 은행규모의 증대와 중소기업 대출 몫의 반비례관계는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中小企業의 銀行接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그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소액차입자에서 고액차입자로의 서비스 이동이 대형화된 은행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규모의 증대가 組織編制上的 規模不經濟(organizational diseconomies)를 만들기 때문이며, 셋째,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조직적 복잡성이 지역에 기초한 소액금융서비스를 낮은 비용에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Berger, Demsetz, and Strahan(1999)).

은행합병의 중소기업 대출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은행합병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Peek and Rosengren(1995), Keeton(1996), Berger *et al.* (1997)).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은행합병 후 더 커진 자산규모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구

(4) 미국의 경우 1993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60% 이상이 은행을 통해서 조달되었다(Cole, Wolken, and Woodburn(1996)).

모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Peek and Rosengren(1998)]. 또 다른 연구는 소형 은행간의 합병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trahan and Weston (1998)], 다른 연구는 은행합병이 중소기업에 특화하는 다른 새로운 은행을 만들게 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은행접근성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Berger *et al.*(1997)].

Peek and Rosengren(1995)은 1993년과 1994년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13개의 은행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대형 합병은행은 그들의 피합병은행이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합병은행들은 대체로 피합병은행이 가지고 있던 장기 고객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Keeton(1996)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은행에 의한 지방은행의 합병은 해당지역의 소규모 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병은행은 지방은행에 비해, 은행예금을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출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예금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Berger *et al.*(1997)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은행합병이 가져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합병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효과를 단순한 은행규모 증대에 따른 靜態的 效果, 자산운용 업무 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인 再編效果, 대출성향의 변화를 고려하는 直接效果, 그리고 다른 은행의 신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外部效果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 그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합병이 아닌 순수한 은행합병의 경우 정태적 효과는 매우 커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감소한다. 재편효과나 직접효과는 약간의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정태효과를 상쇄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 외부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전체적인 효과를 종합하면 은행합병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Peek and Rosengren(1998)은 은행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합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몫이 합병은행의 그것보다 클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은 감소한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은 합병은행이 자주 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몫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ahan and Weston(1998)도 소형은행들 사이의 합병은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은행합병이 처음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증가시키다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몫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대출 절대액의 크기는 은행규모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은행합병은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一般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대형화는 중소기업 대출에 따르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형은행에 비해 더 큰 비용상의 비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며, 장기관계를 통한 정보획득과 감시보다는 표준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대출기법이 대형은행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신흥기업, 그리고 신용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가계는 대형은행에서 더 적은 서비스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으로 하여금 업무의 초점을 少額金融에서 高額金融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대출에서 채권투자로 전환하게 하면 중소기업의 은행접근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만일 합병은행이 업무의 초점을 소액금융에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은행의 시장집중을 강화시킨다면,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통해 가격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등 소액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3.2. 金融시스템에 대한 效果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금융제도 전체의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金融 시스템 危險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시장 참여자가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을 갖게 될 때, 이 위험이 금융제도 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위험을 파급시켜, 결국 생산활동과 고용 등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위험을 말한다(Berger, Demsetz, and Strahan(1999), G-10(2001)).

은행합병이 시스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병의 결과 대형화된 은행의 위험이 다른 많은 금융기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은행의 不實化는 시스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데, 그것은 은행의 대형화가 銀行間 相互關聯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支拂이나 清算制度의 集中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은행의 부실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나 신용문제를 크게 할뿐만 아니라, 지불과 청산문제를 야기시켜 전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개별 합병은행의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G-10(2001)). 대형화가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는 미국의 경우, 전국적 합병이나 국제적 합병의 경우, 위험을 地理的으로 分散시킴으로서 합병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겸업형태의 합병은 生産物 多樣化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또한 은행의 대형화는 은행들 사이의 相互 監視를 강화시켜 개별은행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Rochet and Tirolle(1996)].

한편 대형화가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견해는 은행의 대형화가 개별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자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소규모 은행보다는 보다 더 위험이 큰 경영전략을 채택하게 하기 쉽기 때문에 개별은행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G-10(2001)).

개별 합병은행의 위험증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개별 대형은행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의 효과는 매우 커진다. G-10의 보고서는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어떻게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밝히고 있다. 은행합병은 대형은행과 금융복합체들 사이의 相互依存性을 크게 強化시키는데,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은행들 사이의 상호관련은 단기 은행간 대출, 중장기 은행간 대출, 파생상품 투자에서 주로 오는데, 이 상호관련이 한 은행의 부실을 다른 은행으로 전염시켜 금융제도 전체의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에서 대형은행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크게 증가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의 위험은 그만큼 커진 것이다(G-10(2001)).

따라서 G-10의 보고서는 이러한 합병에 따른 대형화와 금융복합체의 출현이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政府當局의 보다 큰 監督과 規制政策의 改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더 큰 안전망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화에 따른 업무내용의 복잡성과 금융시장 발전과 국제화에 따른 감독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 감독과 안전망 구축의 확대로도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또한 감독 강화와 새로운 감독기법의 개발, 안전망의 확충은 당연히 더 높은 社會的 費用을 수반한다. 더욱이 안전망의 확대 구축은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大馬不死(too big to fail)’라는 믿음에 기초한 도덕적 해이를 더욱 증대시키도록 할 수도 있어, 단순한 경제적 비용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⁵⁾

4. 國民銀行과 住宅銀行 合併의 效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두 은행의 합병을 발표했다. 두 은행의 합병이 합병은행은 물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⁶⁾

(5) 그러나 Mishkin(1999)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개별금융기관의 실패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금보험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긍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는 합병은행 당사자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와 합병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은행 당사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이 住宅金融에, 국민은행이 家計貸出과 카드業務에 特化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은행의 합병은 業務多角化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또 두 은행의 합병은 國內 小賣金融에서 獨占的 地位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통한 가격결정력을 바탕으로 수익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보면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대형화가 우리 금융의 國際競爭力를 強化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두 은행의 합병이 선도은행으로서 전체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대출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합병은행이 시장집중력을 바탕으로 수신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은행예금에서 채권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資本市場을 發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는 두 은행이 모두 소매금융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범위의 경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중복 지점의 폐쇄와 대규모 인력감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데, 그 가능성 여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서는 두 은행의 합병에 따라 시중자금이 두 은행으로 집중되게 되면, 기업금융을 주요 업무로 하는 다른 은행의 수신고가 저하되어 企業金融에 否定的인 效果를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두 은행의 합병은 두 은행의 기존 消費者에게도 나쁜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두 은행의 합병에 따라 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소비자의 경우 貸出限度 縮小를 겪게 될 것이며, 합병은행은 합병 이전의 경쟁상태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선진각국의 은행합병 결과에 대한 연구와 두 은행의 업무특성을 토대로, 두 은행의 합병이 갖는 은행 자체의 효율성 효과와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예상한다면, 위의 긍정적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은행의 합병효과를 먼저 해당은행 자체의 효율성 효과 측면에서, 이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4.1. 두 銀行 合併의 經濟的 效率性

두 은행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의

(6) 이들 두 입장은 두 은행합병 전후의 각 일간신문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일반적인 여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 출처는 명시하지 않는다.

경제나 업무 다각화를 통해서 이윤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자.

첫째,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費用面에서의 效率性を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합병에 따르는 단순한 대형화만으로는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규모가 250억 \$ (원화로는 약 32조원)을 넘어서면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은행은 거의 없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1999년말 각각 83조와 5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은 자산규모를 약 140조원 정도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자산규모에서는 단순한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은행합병에 대한 예상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규모의 경제에 대한 결론은 얻기는 어렵지만,⁽⁷⁾ 최근의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店舖網의 擴大에 따른 수신기반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자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重複 店舖의 閉鎖나 人力減縮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이자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비이자비용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대체로 중소형 은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김용선·차진섭(1999)].

다른 나라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국내 연구의 예측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두 은행의 합병이 전체적인 비용상의 규모의 경제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은행의 합병에 따른 자산규모의 비대화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자산규모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다. 그리고 국내의 예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은행의 합병 이후에 점포망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점포망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이자비용과 관련한 규모의 경제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복 점포의 대폭적인 폐쇄나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약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1999년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각각 영업비용의 11.9%와 18.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그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두 은행의 인건비 비중은 영업비용 전체 중에서 국민은행이 7.8%, 주택은행이 12.4% 정도밖에 안돼, 흔히 예상하는 대로의 인원감축을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⁸⁾

(7) 우리 나라의 은행합병에 대한 모의 합병 분석 결과도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좌승희(1992), 김인기·김장희(1991)의 연구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정익준(1993), 양동욱·좌승희(1996)의 연구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두 은행에 각각 86.8%와 80.5%를 차지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영업비용을 절약해야만 비용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규모의 증대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⁹⁾

둘째, 두 은행의 합병이 利潤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앞에서 본 외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은행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또 인수은행이 합병 이전에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은행간에 완전한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합병은 이윤효율성의 개선을 얻을 수 있다.

국내의 이윤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은행의 생산성 증가와 관련해 각 요소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대형은행은 시중중소은행에 비해 產出物의 增價에 따른 生産性 增加效果가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수·이충열(2000)).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기준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가져올 이윤효율성 증대 효과를 보면 이윤효율성의 개선은 매우 制限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먼저 이윤의 효율성을 얻기에는 두 은행 합병의 규모가 너무 크다. 또 합병 이전에 두 은행 중 특별히 높은 이윤의 효율성을 얻고 있었던 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은행의 최근 3년간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두 은행의 3년 평균 자산수익율(ROA)은 국민은행이 0.22%, 주택은행이 0.24%로 두 은행이 매우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은행이 完全한 化學的 融合을 통한 합병을 이룰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表 1〉 두 銀行의 營業費用 構成費(1999년)

(단위: 억원, %)

	영업비용	이자비용	수수료 비용	신탁업무 운용손실	기타 영업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
국민은행	79,663	52.92	1.12	0.09	33.95	11.92	(65.9)
주택은행	42,981	64.26	0.94	0.00	16.23	18.57	(66.9)

資料: 국민은행, CEO경영정보, 내부자료.

(8) 이와 같이 두 은행의 합병 후 중복 점포의 폐쇄나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용효율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은행합병 후에도 인원감축은 없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비용효율성의 향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9) 더욱이 두 은행은 모두 영세민 대출, 학자금 대출, 실업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정책자금적 성격의 소매대출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거래규모가 작아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업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차원에서 쉽사리 취급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表 2〉 두 銀行의 最近 3年間 收益性 比較

(단위: %)

	1997		1998		1999	
	ROA	ROE	ROA	ROE	ROA	ROE
국민은행	0.33	4.11	0.17	2.46	0.17	2.80
주택은행	0.36	3.59	-0.70	-8.62	1.06	21.61
시중은행전체	-1.03	-14.09	-3.32	-48.63	-1.55	-38.41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表 3〉 두 銀行의 資金調達(豫受金)業務內譯(1999년말잔, 구성비)

(단위: %)

	은행계정			신탁예수금	합계
	원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외화예수금		
국민은행	69.42	2.08	1.69	26.79	100.0
주택은행	79.42	0.09	0.45	20.02	100.0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문화가 서로 다른 두 은행의 합병이 완전한 두 은행간의 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합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이나,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의 합병 결과는 기업문화가 다른 두 은행의 완전한 융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두 은행의 기존 업무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합병 후의 시너지효과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은행 모두 資金調達이나 資金運用 면에서의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조달의 경우 예수금 중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은행의 資金運用內譯을 보더라도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모두 시중은행 평균보다 더 크게 貸出金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有價證券에는 더 작게 운용하고 있다. 물론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에 비해 총대출금의 비중은 낮고, 유가증권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을 보고 두 은행의 업무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화대출금의 구성비를 보면, 국민은행은 企業資金 貸出에 주택은행은 住宅資金 貸出에 서로 特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자금에 대한 대출은 국민은행이 원화대출

〈表 4〉 두 銀行의 資金運用內譯(1999년말잔, 구성비)

(단위: 억원, %)

	총자산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대출금	유가증권	기타
국민은행	830,086	79.6	20.7	45.9	33.2	20.9
주택은행	555,099	84.0	16.4	59.5	23.1	17.4
시중은행평균	5,158,268	79.8	20.8	43.5	33.6	22.9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表 5〉 두 銀行의 元貨貸出金 形態別 構成比(1999년말잔)

(단위: %)

	기업자금	가계자금	공공 기타	주택자금	은행간대여	합계
국민은행	61.7	32.6	1.7	3.4	0.2	100.0
주택은행	13.4	20.9	0.8	64.9	0.0	100.0
시중은행평균	59.5	24.1	1.8	13.6	0.8	100.0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0.

금의 61.7%를 차지해 주택은행의 13.4%보다 훨씬 높으며, 주택자금은 주택은행이 64.9%로 국민은행의 3.4%에 비해 월등히 크다. 이로부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업무가 기업금융과 주택금융에서 서로 補充性을 가져 합병 결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윤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기업자금 대출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두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은 가계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형태를 중소기업과 가계자금 대출을 합한 小賣金融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의 都賣金融으로 다시 분류해서 본다면 두 은행은 모두 소매금융에 치중해 있다.⁽¹⁰⁾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둘 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더 큰 소매금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두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가계금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은행의 업무 특성은 두 은행이 서로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어서 합병을 통한 수입이나 이윤상의 범위의 경계를 가져오게 하기 어렵다는 시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은행 합병의 이윤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합병은행

(10) 학술적으로 소매금융은 은행과 기업 또는 개인간의 거래를 말하며, 도매금융은 은행간 거래나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중의 일반적 용어사용법을 따라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少額去來에 대해서 小賣金融, 高額去來에 대해서 都賣金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表 6〉市中銀行의 小賣金融과 都賣金融 構成比

(단위: %)

	국민은행	주택은행	한빛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소매금융	81.00	92.88	68.33	68.68	78.80	62.42	66.67
중소기업	44.38	12.53	44.37	42.66	51.94	36.94	43.14
가계자금	36.63	80.36	23.96	26.02	26.86	25.48	23.54
도매금융	19.00	7.12	31.67	31.32	21.20	37.58	33.3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국민은행, CEO 경영정보, 내부자료.

이 기존의 소매금융 위주에서 탈피해 대형은행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새로운 업무를 개척해 業務多角化를 추구한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두 은행이 소매금융위주의 은행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영업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다각화와 함께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는 金融管理 技法의 向上이 이윤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행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감독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윤효율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합병이 가져다 줄 시장지배력 증대를 기초로 이윤마진 즉, 낮은 예금이자율과 높은 대출이자율 책정을 통한 預貸利子率 마진의 增大와 手數料率을 增大시키는 것이다. 외국의 일부 사례는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역시 다음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4.2. 두 銀行 合併의 國民經濟에 대한 效果

다음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국내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도 은행으로서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첫째, 大型化를 통한 國際競爭力의 向上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자. 두 은행의 합병은 자산규모가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형은행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대형화는 은행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자산증대를 기초로 한 危險-收益境界를 끌어올려 은행의 투자전략 폭을 넓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전반까지 전개되었던 은행합병의 주요 추세는 규제완화

에 따른 지역은행간 합병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합병은 서로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간의 합병이었다. 이들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동종업무를 전개하던 은행간의 합병의 경우는 營業地域의 擴大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 사이의 합병의 경우는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무를 동시에 취급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얻고 金融世界化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종산업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은행과 보험업무의 통합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대형화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¹¹⁾ 영업지역의 확대를 통해 수신기반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도, 서로 다른 이종산업간의 통합을 통한 업무 다각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한 것도 되기 어렵다. 더욱이 두 은행이 소매금융 위주로 특화해 온 전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단순한 합병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소매금융의 특성상 소매금융 전문은행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국내은행의 금융기술 수준이나 금융행태를 고려한다면, 해외시장의 개척은 아주 오랜 기간의 준비없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海外銀行의 國內進出과 競爭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규모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규모의 불경제로 인해 비효율을 남기가 더 쉽다. 오히려 소규모 은행이 소매금융에 특화해 消費者 密着形 戰略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해외은행과 경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두 은행의 합병이 국내 금융시장의 先導銀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國內 金融市場의 시스템 安全性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앞의 외국의 연구에서 보듯이 대형은행의 탄생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은행의 대형화는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대형은행의 위험감수 행동의 강화나 다른 은행과의 연관관계 강화로 인해 대형은행 자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시스템의 안전성도 위협받기 쉽다. G-10(2001)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은행의 탄생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당은행의 부실시 워크아웃도 어렵게

(11) 실제로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들도 두 은행 합병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두 은행장은 합병 발표 얼마 전까지도 합병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다. 두 은행은 중복 점포가 많고 업무가 유사해 시너지효과가 없어서 합병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양 은행장 모두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은행이 합병을 발표하기 전에도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한 업무계획 등에 대한 깊은 조사나 장래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갑작스럽게 두 은행장이 합병을 서두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이 있을 뿐, 정확한 이유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은행의 합병성공 여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들어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여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은행의 합병이 선도은행으로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다른 은행에서도 받아들여지는, 價格先導者로서의 역할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가격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합병은행의 독점렌트 취득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가장 낮은 자금공급 가격에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여론과는 정반대로 두 은행의 합병에 의한 시장지배력 증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대출의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을 얻게 되는 불리함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두 은행의 합병은 消費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은행의 주요고객은 中小企業이나 家計이다. 두 은행의 합병이 이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의 외국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 감소나,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감소시켰다. 그것은 합병은행이 대형화를 통해 업무전략의 초점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규모의 대형화가 소매금융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소매금융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小賣金融은 조직의 대형화로 인한 운용상의 비효율 때문에 수익성을 감소하게 만들기 쉽고, 수익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소매금융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少額貸出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만 소매금융을 계속하되,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인 이자마진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맺음말

선진 각국의 지난 20여년간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합병열기는 다수의 은행 또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합병이 합병 당사자들에게 비용상의 효율성이나 수입 또는 이윤상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합병이 금융시스템이나 소비자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합병의 열기를 식히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株主나 經營者의 利益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진 각국의 경험과 국민은행·주택은행의 업무특성에 비추어볼 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두 은행 당사자의 비용효율성이나 이윤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두 은행의 합병은 이들 은행에 크게 의존해 오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가계에게 銀行接近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資金調達 費用을 增加시키게 하는 결과를 낳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이 합병의 성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업무의 확대를 통해 업무 다각화를 추구하여 이윤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인한 시스템 위협의 증대를 막기 위해서는 政府當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세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밭大學校 經商學部 副教授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 16-1

전화: (042)821-1302

팩시: (042)821-1298

E-mail: bhcho@hanbat.ac.kr

參 考 文 獻

- 김용선·차진섭(1999): "우리 나라 은행합병의 효과와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9. 2.
- 김인기·김장희(1991): "한국 은행산업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연구," 『금융연구』, 5. 2, 한국금융연구원.
- 양동욱·좌승희(1996): "합병의 비용효과 분석," 『경제분석』, 2. 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이영수·이충열(2000):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계측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제분석』, 6. 1,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 이인식(2000): 『일본 도시은행의 합병과 시사점』, 한국은행·동경사무소, 국외사무소 조사 자료 2000-2.
- 정익준(1993): “은행업의 대형화와 효율성: 비용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9. 5.
- 좌승희(1992):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 14. 2.
- Akhavein, J., A. Berger, and D. Humphrey(1997): “The Effects of Megamergers on Efficiency and Price: Evidence from Bank Profit Func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2.
- Altunbas, Y., P. Molyneux, and J. Thornton(1997): “Big-Bank Mergers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Cost Implication,” *Economica*, 64, 317-329.
- Berger, A.(2000):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ere are the Efficiencies?,” FRB Working Paper.
- Berger, A., R. Demsetz, and P. Strahan(1999): “The Consolid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135-194.
- Berger, A., and D. Humphrey(1997): “Effici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urve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98, 175-212.
- Berger, A., D. Humphrey, and L. Pulley(1996): “Do Consumers Pay for One-Stop Banking? Evidence from an Alternative Revenue Func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1601-1621.
- Berger, A., and L. Mester(1997): “Inside the Black Box: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the Effici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1, 895-947.
- Berger, A., A. Saunders, J. Scalise, and G. Udell(1997): “The Effects of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on Small Business Lending,” FRB Working Paper.
- Berger, A., and G. Udell(1996): “Universal Banking and the Future of Small Business Lending,” in A. Saunders, and I. Walter(eds.) *Financial System Design: The Case for Universal Banking*, Burr Ridge.
- Clark, J., and T. Siems(1997): “Competitive Viability in Banking: Looking Beyond the Balance Sheet,” FRB Dallas, Working Paper.

- Cole, R., J. Wolken, and R. Woodburn(1996): "Bank and Nonbank Competition for Small Business Credit: Evidence from the 1987 and 1993 National Survey of Small Business Finance," *Federal Reserve Bulletin*, **82**, 983-995.
- G-10(2001): *Report on Consolid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Group of Ten.
- Haynes, M., and S. Thompson(1999): "The Productivity Effects of Bank Mergers: Evidence from the UK Building Societ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856-846.
- Hughes, J., W. Lang, L. Mester, and J. Moon(1999): "Dollars and Sense of Bank Consolida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291-324.
- Hunter, W., and S. Timme(1995): "Core Deposits and Physical Capital: A Reexamination of Bank Scale Economies and Efficiency with Quasi-Fixed Input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 165-185.
- Hunter, W., S. Timme, and W.K. Yang(1990): "An Examination of Cost Subadditivity and Multiproduct Production in Large U.S. Bank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2**, 504-525.
- Keeton, W.(1996): "Do Bank Mergers Reduce Lending to Business and Farmers?," FRB Kansas City *Economic Review*, **81**, 63-76.
- Mishkin, F.(1999): "Financial Consolidation: Danger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675-691.
- Noulas, A., S. Ray, and S. Miller(1990): "Return to Scale and Input Substitution for Large U.S. Bank,"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2**, 94-108.
- Peek, J., and E. Rosengren(1995):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How Important is the Size of Lender," FRB Boston, Working Paper 95-5.
- _____ (1998):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It's not just Bank Size that Ma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799-819.
- Rhoades, S.(1998): "The Efficiency Effects of Bank Mergers: An Overview of Case Studies of Nine Merg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273-291.
- Rochet, J., and J. Tirolle(1996): "Controlling Risk in Payment System,"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8**, 832-861.
- Strahan, P., and J. Weston(1996): "Small Business Lending and Bank Consolidation: Is there Cause for Concern?,"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2**, FRB New York, 1-6.
- _____ (1998): "Small Business Lend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821-845.

Vander Venet, R.(1996): “The Effe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th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of EC Credit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1531-1558.